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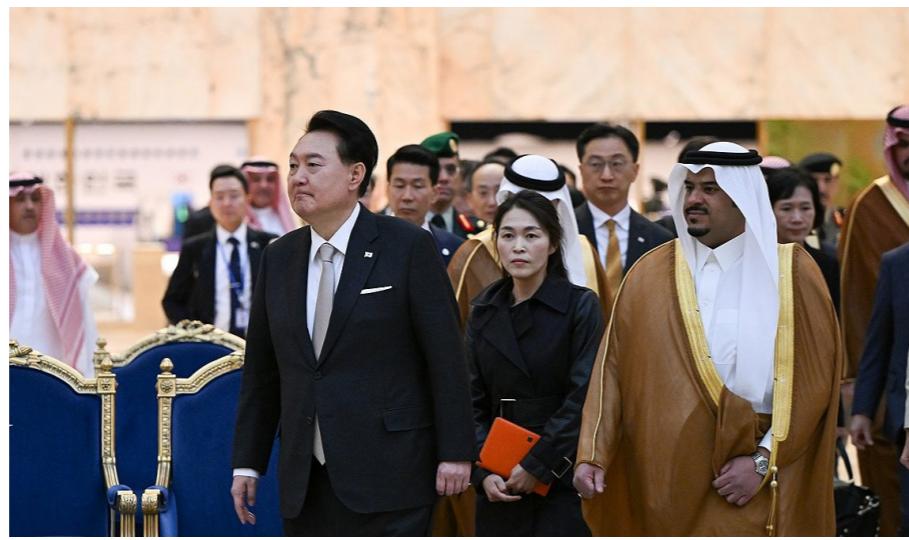
“尹대통령, 우리 복합위기 중동붐 통해 해결책 찾을수있다 생각”

대통령실 “한국, 사우디 포스트 오일 시대의 최적 파트너 될 것”

대통령실은 22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과 직면한 복합위기는 새로운 중동 붐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게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중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년 전 국정과제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로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전 부처의 산업화를 독려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올해는 우리 기업의 사우디 진출 50주년으로서 기업들의 전폭적인 중동 진출은 1970년대 오일쇼크 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연이은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중동 특수를 통해 경제 도약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내외

김 수석은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과 함께 40조원 사업 규모의 26개 대형 투자협약으로 제2의 중동 특수가 열렸다”며 “또 총투자비 14조원의 사항 프로젝트로 경제협력의 새 지평이 열린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포스트 오일 시대

디지털 과학기술 산업 국가로 전환하는데 한국은 최적의 파트너로서, 일명 첨단 산업 파트너십으로 양국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또 “사우디는 현재 국가 전환 비전인 2030 네옴시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로 원전, 친환경에너지, 디지털, AI(인공지능)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과의 파트너십은 에너지 건설을 넘어서 수소, IT,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의 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만나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양국 발전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일정은 결국 모두 우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1천년 전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린 아랍에서 이번 사우디 순방은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뛸 운동장 넓히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송원기 기자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영풍제지 시세조종, 100여개 계좌로 11개월간 주가 12배 올렸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영풍제지 주가 시세조종에는 100여개 이상의 혐의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꾼들은 ‘라데연 사태’와 마찬

가지로 다수 계좌를 동원해 매일 조금씩 시세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11개월 동안 주가를 무려 12배 이상 끌어올렸으나 금융당국의 데이터 분석과 자금 추적에 결국 꼬리를 밟았다.

22일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영풍제지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처음으로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 라데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드러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팍락 사태 후 금감원은 특별한 호재성 공시 없이 장기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한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른바 라데연 사태는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동원된 다수의 계좌를 이용, 거래량이 적은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해 주가가 급락한 사건을 말한다.

시세조종 기간이 길고 일일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기존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벗어나는 대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등 민생 현장을 도는 일정도 차츰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라데연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및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결국 이를 통해 6월 네이버 주식카페 비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씨의 시세조종 사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후 강제수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9월 증권선물위원장의 패스트트랙(긴급조치) 결정을 통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 김성훈 기자

이재명, 내일 국회 컴백…‘통합-민생’ 투트랙 행보 예고

단일대오 재정비 주력…‘가결파 5인방’ 징계청원 보류 관측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하고, 밖으로는 ‘대안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사실상 총선 모드로 당 체제를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당무 복귀 후 첫 과제로 꼽혀온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징계 청원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이 가장 주목된다.

징계 청원에는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 이상이 참여했는데, 그간 최고위원회들은 당 윤리심판원 회부 결정을 미루며 이 대표의 복귀를 기다렸다.

이와 별개로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해당(害黨) 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대표는 당내 분열은 총선 필패로 인식하

고 있다”며 “징계청원 처리는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실제 친명계 내에서도 구속영장 기각·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탄탄해진 상황에서 반대파 징계는 당내 분분만 야기할 것이란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대외 메시지 핵심은 단연 ‘민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회의에서의 발언 역시 서민 경제난 해결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는 전언이다.

여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국정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도 깔려 있다. 이 대표는 단식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대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등 민생 현장을 도는 일정도 차츰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간헐적으로 진행해 온 이른바 ‘민생 경청투어’도 적절한 시점에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 남희찬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밀바탕되는 전문가위 보고서, 구체적 제안 없어…시나리오만 24개



지난 9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김용하 위원장(오른쪽) 너머로 공적연금 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규탄 현수막을 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

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돼 왔다. 다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두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정부 개혁안의 밀그림이 될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재정계산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해왔다. 재정계산위는 지난 19일 복지부에 개혁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은 채 24개에 달하는 시나리오만 제시했다.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고(지급개시연령 연기), 기금 운용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기금수익률 상향), 더 많이 받는(소득 대체율 상향) 등 사실상 학계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

'2039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라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에 방점을 두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 대신 '행간을 읽어달라'는 당부만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것도 정부가 '숫자'가 담긴 개혁안을 내놓은 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는 작년 10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이달 말까지인 활동 기한을 종선 후인 내년 5월 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내년 총선이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혁안을 내놓을 경우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을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략적인 구조적 개혁의 방향성 정도만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단일 안 제시 여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 (그간) 4번의 계획 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면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에서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개혁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정부 개혁안이 구체안을 담지 않는다면 국회 논의에서도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이 끝난 뒤에야 속도가 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 김성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2023 취업정보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자립준비청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한도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아직 희망자, 업무역량 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등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무원이나 75세 이상,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기업 종사자 등은 이용할 수 없다.

한도는 300만원인데, 기간제·파견 근로자 등에 대해선 1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에 장애인과 자

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출소예정자 등도 2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한도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자 대상에 대한 지원은 종료되고, 기간제, 파견근로자, 고용위기자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만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된다.

새로운 규정엔 ▲ 신소재 개발 및 제조 ▲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추가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

/ 서정미 기자

소 럼피스킨병 확진 5건 추가…사흘새 10건으로 늘어

충남 서산 농장서 3건·충남 태안과 경기 평택서 각 1건



경기와 충남 소재 축산농장 모두 다섯 곳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국내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첫 발생 이후 사흘 만에 모두 10건으로 늘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 세 곳과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젖소농장 한 곳, 충남 태안군 이원면의 한우농장 한 곳 등 모두 다섯 곳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이중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우농장 세 곳과 경기 평택시 소재 젖소농장은 모두 앞서 확진 사례가 나온 농장과 인접한 곳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했다.

또 각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들은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한다.

농장 다섯 곳에서 기르는 소는 모두 300마리 정도다. / 흥민 기자

정치·선거 여론조사 때 ARS 없애고 전화면접만 한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회사 34곳이 정치·선거 여론조사를 할 때 자동 응답서비스(ARS) 방식을 없애고 사람(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 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여론조사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를 넘도록 했다.

국내 조사 기관 34곳이 가입해있는 한국조사협회(KORA)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장인 메트릭스, 한국갤럽, 네스트리서치, 리서치앤리서치, 엠브레이퍼블리, 한국리서치 등 34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야 정당 지지율, 총선 관련

여론조사 등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 때 중

양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전화번호 임의결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정보가 함께 제공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와 달리, 임의 번호만 추출되는 RDD는 상대적으로 표본 크기를 맞춰 조사

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기준에 담겼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시하도록 했다.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정치선거 여론조사 기준은 21일부터 협회 소속 34개 여론조사 기관에 적용됐고, 이를 조사기관은 앞으로 이 기준을 준수해 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 곽현중 기자

KOMIR, 자원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품다

"충북 광천석면광산 산림복구사업 준공지"

- KOMIR 탄소증립
- 탄소흡입 산림조성
- 광산 탄소저감시설 지원
- KOMIR 동반성장
- 중소광산 기술고용지원 및 성과공유
- KOMIR Safety
- 광산안전컨설팅 · 안전시설지원
- KOMIR 뉴딜
- 산림자원 등 활용 도시재생 사업

與 “이재명 복귀” 민주당도 ‘민생 최우선’ 함께 하길 기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에 민심 여과 없이 전달”



박정하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부터 당무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부디 국민의힘의 ‘민생 최우선 행보’에 민주당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21대 국회가 진정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민생 해결을 위해 협치하고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거듭 가슴에 새길 것”이라며 “차분하지만 확실한 변화, 내실 있는 변화로 기대

에 부응하기 위해 뛰어들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공해”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며 “정치 혐오성 현수막 철거를 시작했고,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

한 법 개정을 위해서 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성 당내 각종 태스크포스도 정리해 정책 중심 정당으로 변화를 시작한다”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여과 없이 전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단다”고 덧붙였다.

/ 송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이 10월 18일 국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민주 “김승희 사표 수리, 엄중한 대응 아닌 은폐 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 재이송에 “없던 증거 만들 건가”



김승희 대통령실의전비서관 사퇴

등한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이 사건에 주목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새로 부임한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에 총 3개 부서, 검사만 21명에 달하는 이 대표 관련 전 담수사를 꾸렸다”며 “더 강력한 강압 수사로 없던 증거라도 만들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 검사에 대해 ‘증언 오염’ 의혹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21년 1월 사건을 맡은 뒤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한 혼심 증인인 건설업자 최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놓고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그를 면담했다고 한다.

이후 2심까지 김 전 차관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법정 증언이 달라졌고, 대법원이 최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이 검사가 결국 ‘증언 오염’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증언 오염” 의혹을 받는 더 강력한 해결사를 데려온 것인가”라며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유정 기자

달리는 버스에서 욕설·몸싸움

순천시의원들 ‘물의’

전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는 버스에서 욕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남권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버스)를 타고 단체로 상경했다.

버스에서 A 의원이 “국회 앞에서 지역 위원장(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삭발식이 있으니 격려자 국회에 들른 뒤 용산으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일방적인 일정 통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싸움으로 변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 재직의원 정수는 총 25명이며 민주당 20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2명이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 윤희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사표를 내고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 아니었나는 의혹이 생겨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이 제기된 후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내자 곧바로 이를 수리한 바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무엇을 접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5년짜리 권력의 위세가 그렇게도 등

KB금융그룹 | 금융포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탈나가는 투자전략 주시고요 반도체는 더블로 주세요”

바이오



우주항공산업

AI

2차전지

+ 반도체

ETF, 그 다음은

KB증권 디렉트인덱싱

내 맘대로 넣고 빼고! 스마트한 주식 투자

투자를 끊지! 깨비증권

*한국증권투자자회 실사법 제23-02853호(2023.08.03~2024.08.02)*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이용약관을 반드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저작 기간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으로 0.12%이내로 기여 지세한 환율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식 기관 시수수료(내국인 계좌) IHTS(홈페이지 0.015%) 모바일 정수합니다. *투자는 투자자문 보수 외에 지문 결제 계좌 내 금융투자상품 등록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및 세금, 기타 거래 관련 비용 등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KB증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 관련 현수막은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전국 거리가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냉철하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강제 현수막 철거’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면서 서로 간 갈등이 빚어져 근본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불편’, ‘안전 위협’…민원 급증에 참

다못해 철거 나선 지자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급증한 건 지난해 12월 11일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시행하면서부터다.

문제의 법 조항은 제8조 8항 ‘정당이 통

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당 현수막 정비를 계속해온 인천시는 대법원 결정에 힘입어 조례 위반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역으로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 7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규제에 관한 시 조례가 대법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생겼다”며 “이 조례처럼 시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조례 개정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에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민원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를 ‘지정 계시대’로 한정하고 계시 개수 또한 ‘공지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흡·비방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의회도 지난달 25일 정당별로 흡·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만 계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뒤에도 정

“정치 혐오 조장” 난립한 현수막 철거는 위법?…해법 마련 절실

옥외광고물법 개정 후 민원 급증…지자체별 철거 조례 개정 잇따라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다.

이때부터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으면서 지자체에 민원이 빚어졌다.

이에 가장 먼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건 인천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해 조례 위반 정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있다.

또 지정한 계시대에 걸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했다. 인천시가 시민 2천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87.5%가 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동의했다.

시민 과반수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느꼈다’며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 ‘생활 환경과 안전을 해친다’는 등 정당 현수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행안부는 인천시의 조례에 대해 ‘상위 법에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를 기각했다.

문제의 법 조항은 제8조 8항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광고물을)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뒤에도 정

/ 이철승 기자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강화 추진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폭행·유기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왔다.

형법상 살인죄의 범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절반으로 미수범 감경을 하면 집행유예(형이 3년 이하일 때만 가능) 선고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



있겠지만, 아동학대 살해 미수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되는 범죄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이 원활 경우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안을 겪는 피해 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검사가 아동학대 행위자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박민재 기자

'18명 사상' 낚시어선 왜 뒤집혔나…예인선 '와이어'에 걸린듯

어민들 "사고 어선이 예인선-부선 사이 와이어에 걸렸을 것" 추정



어민들 "사고 어선이 예인선-부선 사이 와이어에 걸렸을 것" 추정

18명의 사상자(4명 사망·14명 부상)가 발생한 전북 부안 어선 전복 사고의 원인에 관심이 쏟고 있다.

22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께 부안군 위도면 하왕동 도 동쪽 약 1.6km 해상에서 18명을 태운 7.93t급 낚시어선 A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크게 부상을 당한 어선을 태운 A호는 당시 예인선과 부선(바다에 떠는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를 지목했다. 사고 당시 예인선은 부선을 와이어로 연결해 끌고 가는 중이었다. 예인선 뒤쪽에 있던 A호는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확인하면서 항해했다.

한 후 뒤집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지역 어촌계와 선장들은 낚시어선 A호가 뒤집힌 원인으로 예인선(다른 배를 끌거나 미는 선박)과 부선(바다에

이 평평한 화물 운반용 선박) 사이에 연결된 '와이어'를 지목했다. 사고 당시 예인선은 부선을 와이어로 연결해 끌고 가는 중이었다. 예인선 뒤쪽에 있던 A호는 GPS 플로터(선박 위치·좌표·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를 확인하면서 항해했다.

그러다 예인선과 부선 사이 연결된 와이어가 있는지 몰라 (와이어에) 걸려 뒤집혔을 것이라는 게 어촌계와 선장들의 설명이다.

이날 오전 A호 선장을 만났다는 어촌계 관계자는 "선장은 이 예인선을 어선으로 착각해 예인선 뒤로 항해했다고 한다"며 "어선으로 착각하다 보니 예인선 뒤에 떨린 부선과 와이어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A호 플로터에서 부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해경은 "수사본부를 꾸려 진상을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말을 아꼈다.

사고 당사자와 목격자들의 추정이 제각각 달라 현재로서는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사고 어선이 와이어에 걸리거나, 뒤따라오던 부선 혹은 예인선과 충돌했다는 말들이 있지만 원인을 특정하기는 힘들다"며 "선장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도 고소**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유가족들이 학부모를 고소한 데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 유족 측은 이날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교사가 근무하던 당시의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의정부경찰서에 접수시켰다.

유족 측은 이 교사의 교권 침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에 별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선 학부모 민원을 받고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유족 측은 강요 등의 혐의로 학부모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기존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가 나오면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고소장 관련해 유족 측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 한지웅 기자



의류업체 A사는 현대홈쇼핑에서 신상품으로 판매된 제품이 실제로는 2021년에 제작된 재고품이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라벨같이' 흔적이 남아있는 제품, 오른쪽은 제조 연월이 '2021년 4월'이라고 기재된 제품

유명홈쇼핑서 산 신상의류…알고보니

2021년 만들고 ‘라벨같이’

국내 유명홈쇼핑에서 제조 연월이 조작돼 ‘라벨같이’가 이뤄진 의류 제품이 대량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송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블라우스 제품 3천 300여 개 세트를 판매했다.

정에서 제품이 마치 올해 제작된 것처럼 제조 연월을 바꾸는 일명 ‘라벨같이’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홈쇼핑을 통해 배송된 일부 제품에는 원래 부착됐던 라벨을 뜯어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인 흔적이 남아있는 것

3장씩 3천300여개 세트 팔려

현대홈쇼핑 “구매 고객에 사과·환불 조치”

블라우스 3벌이 1개 세트로 중간에 할인 과정을 거쳐 4만~5만원대에 판매돼 총 1억5천여만원 어치의 주문이 이뤄졌다. 이 제품은 올해 7월 생산됐다고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2021년 제작 상품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객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었고 반품·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20일 즈음에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흡한 품질 관리로 다수의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데 이어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고객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지 않고 늦장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체 구매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한 고객에게 신속하게 반품·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상품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희정 기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OTRA가 응원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KOTRA가 되겠습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투자 종합 상담
1600-7119



NH농협금융

오늘 나는
특별한 공부를 했습니다

용돈을 잘 쓰는 방법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알아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금융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궁금증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나의 세상을 키워주는 은행



행복채움금융교실

청소년·다문화가정·노인 등 누구나 꼭 필요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은 찾아가는 행복채움금융교실과 NH청소년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식 이론 교육 | 은행직업체험 | 신비한 금고체험 | 금융사기예방교육 | 핀테크 체험 |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리스크 관리 마비됐나'…주가조작 세력 '놀이터' 된 키움증권

증거금률 40%로 방치…이미 100%로 올린 주요 증권사와 대비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약 5천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종목 증거금률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이 '주가조작 세력에게 관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을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률을 속속 100%로 상향 설정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 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된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 까지 납부하면 된다.

결재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한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용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한다. 또 해당 모범규준을 근거로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성,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증권사가 신용용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채권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 보호는 물론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기본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이다.

아울러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과 미수 등 증권사의 대출은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다.

키움증권 역시 관련 본부 안에 위험 종목을 골라내고 증거금률을 산정하는 심사부를 두고 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활용한 '라데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 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었다.

이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작전'이 의

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증권업계는 키움증권의 미수금 규모가 알려지자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키움증권 정도 되는 대형사가 왜 영풍제지 같은 종목의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위험 통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키움증권 내부도 발칵 뒤집혔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천 943억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 258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지난 4월 '라데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아래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폐일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송진영 기자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LH, 전국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총 1천608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통합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천608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480호, 그 외 지역이 1천128호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된다.

/ 흥명섭 기자

대한민국 노후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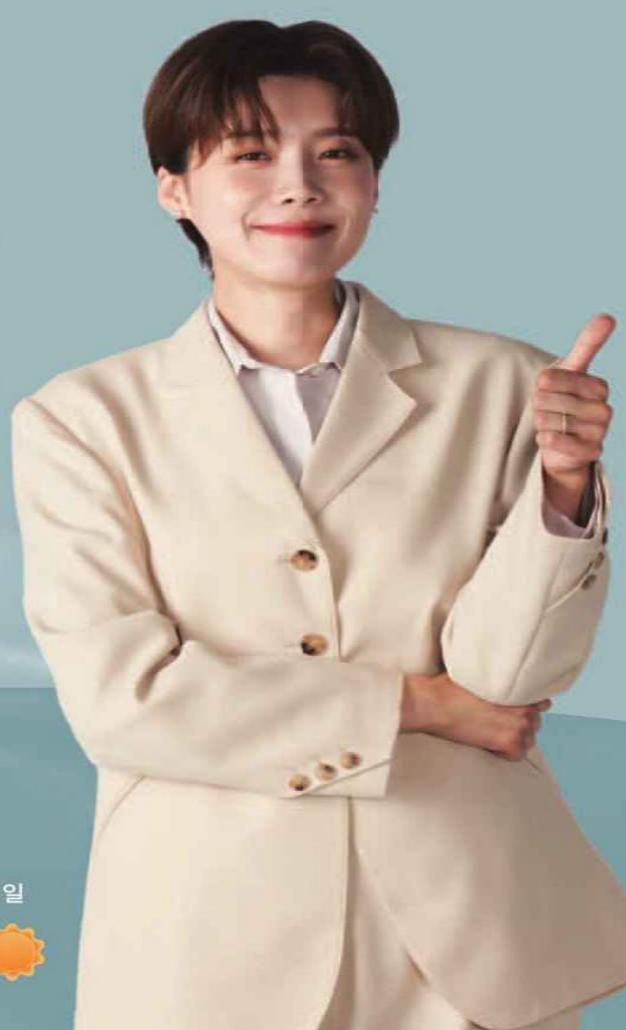
언제나 항상 맑음



**노후날씨
맑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네이버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
당신의 노후행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책임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곁에 있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사우디 가는 네이버, 韓 IT솔루션 중동 첫 수출 신호탄?

채선주 대표 경제사절단 참가…사우디 측 사옥 방문만 9번

오는 26일까지 4박 6일간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비테크' 네이버가 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미래도시'를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그간 사우디 측과 긴밀한 접촉을 지속해온 네이버가 IT 솔루션 중동 첫 수출이라는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22일 ICT 업계에 따르면 채선주 네이버 ESG(환경·사회·기업지배)·대외정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에 동행한다.

채 대표가 작년 11월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원팀코리아' 사우디 수주지원단 일원으로 사우디를 방문해 IT 기술을 소개한 것을 계기로 네이버와 사우디 간 교류는 지속됐다.

마제드 알 호가일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일행은 작년 11월 말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빌딩' 네이버 1784를 처음 방문했다. 이후 암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일행의 최근 방문까지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의 네이버 1784 방문만 9차례에 달한다.

지난 3월에는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투자부와 사우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22일(현지 시각) 오전 진행될 예정인 한·사우디 기업 간 MOU 체결식에서 한발 더 나간 성과가 나올 가능성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체결식에는 양국 각각 약 50명의 정부 인사와 기업인이 참석하며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양국 기업과 기관 간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투자부와 국가 디지털전환 업무협약

채 대표 외에 네이버랩스 관계자도 같은 날 열리는 한-사우디 투자 포럼 패널 토론에 삼성물산[028260] 관계자와 함께 한국 측 패널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네이버 측은 미래 도시를 주제로 발표하고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화된 시스템이 도시의 인프라로 작동하는 미래. 이를 구현해 놓은 네이버의 사옥 1784 등을 설명한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대규모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솔루션 '아크아이(ARC eye)'도 소개한다.

사우디 측 패널로는 유적지 신도시 개발 사업인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의 제리 인제릴로 최고경영자(CEO)와 5천억 달러(약 680조 원) 규모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에너지 대기업 ACWA 파워 관계자 등 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네옴시티와 같은 사우디 신도시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지원할 기업으로 선정되면 국내 최초로 중동 주요국에 IT 솔루션을 수출하는 사례가 된다.

채 대표가 3월 사우디 측과 체결한

/ 채형민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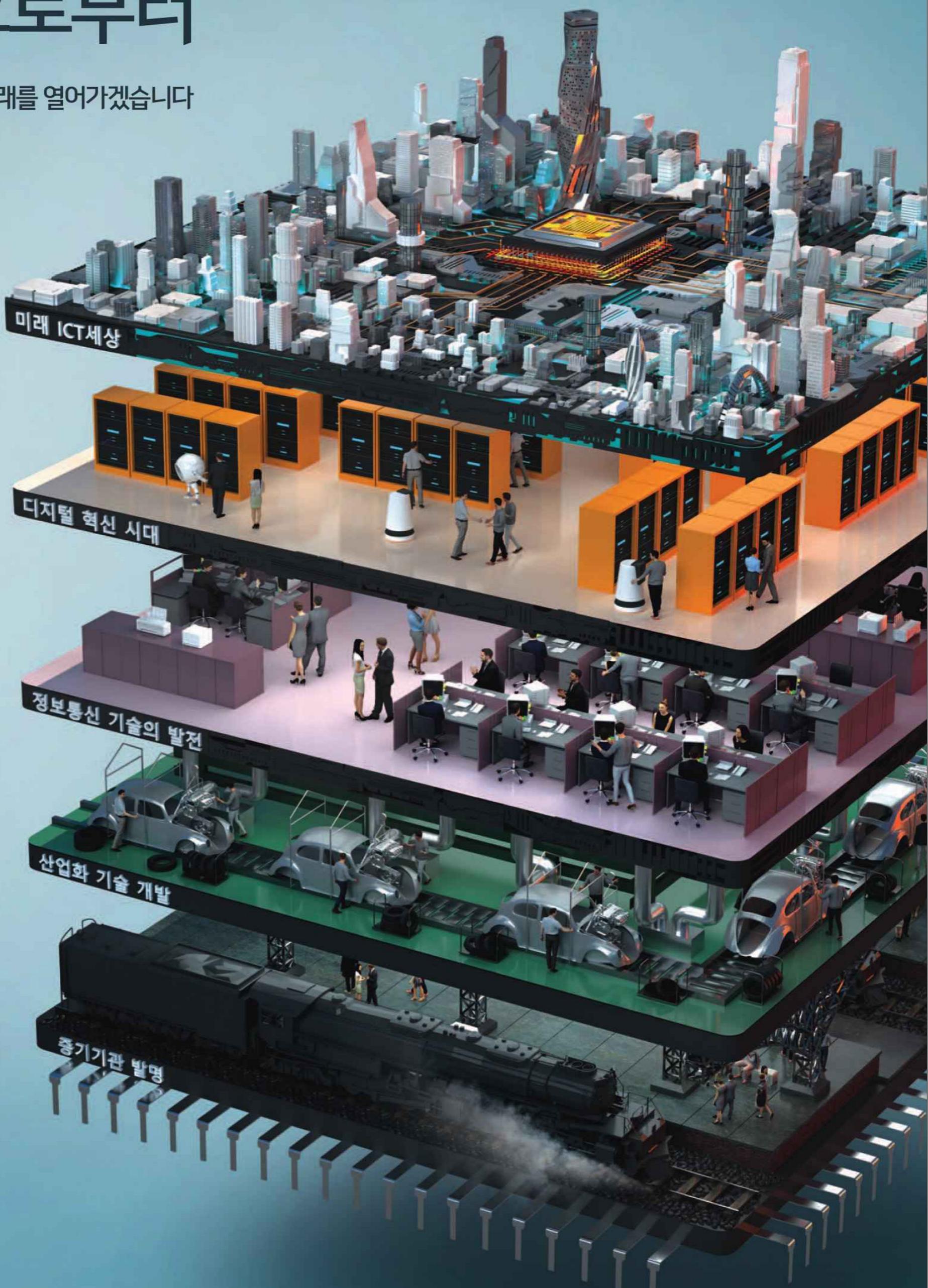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 WAVE

문명의 진보는 기술의 혁신으로부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상권 회복하는 이태원…“올해 핼러윈은 조용히”

해밀톤호텔 서쪽 가벽은 그대로…추모의벽 포스트잇 빼곡



참사가 났던 T자형 괄목

이태원 참사 직후 한동안 한산했던 거리엔 다시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세계음식문화의 거리에는 눈부시게 밝은 네온사인이 거리를 비추고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이 여기저기 퍼졌다.

가게마다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인증샷을 찍어주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참사 1주기(29일)를 앞둔 지난 19일 밤 이태원 거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젊은 연인,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저마다 가을 공기를 즐기고 있었다.

상인들은 상권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참사로 인한 타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태원역 인근 일식점 직원 권모(40)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 참사 전과 비교하면 70%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이태원 근처에서 10년째 여러 가게를 운영한 고모 씨도 “참사 직후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태원 가봤는데 괜찮더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상권이 많이 회복됐다”고 전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3)씨도 “심각했을 때는 말

그대로 손님이 없어서 가게를 닫았는데, 최근에는 체감 상 70%는 회복이 된 것 같다”면서도 “상권 회복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상인들 사이에 만연하다. 이달 핼러윈 때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올해 핼러윈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 예년처럼 핼러윈을 기념하며 가게를 장식하지도, 프로모션 행사를 하지도 않는다.

이태원역 근방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흥모(60)씨는 “과거에는 이맘때 핼러윈 장식을 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추모식을 한다고 하니 (핼러윈) 장식을 할 수는 없고, 평소처럼 가게 문 열고 영업하려고 한다”고 했다.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해밀톤 호텔 서쪽 가벽은 그대로 남아있다.

해밀톤 호텔이 참사 전 북쪽에 세운 불법 증축물과 서쪽에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기 위해 설치한 철제 가벽은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의 인구 밀집도를 높여 인명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밀톤 호텔 측은 북쪽 증축물을 철거했으나, 서쪽 가벽은 불법적 요소가 없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해밀톤 호텔 측은 “북쪽 테라스 증축물은 정리가 된 게 맞다”라면서도 서쪽 가벽을 그대로 둔 이유를 물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서쪽 가벽이 남아 있는 탓에 참사가 악화했던 T자형 괄목은 대형차 한 대가 지나가기에도 버거워 보였다.

용산구청 측은 이와 관련 “호텔 서쪽 가벽은 참사 당시에도 불법이 아니었지만, 참사 당시 사고 원인으로 지목돼 작년에 호텔 측에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당시 구청 조처 대상 위반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 1개를 제외해) 7개였다”며 “6개는 시정 완료됐고 1개가 시정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시민들은 추모의 벽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부디 하늘에선 편하게 지내시길’과 같은 글귀가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된 포스트잇 위에 겹쳐 붙어 있었다.

일본어, 영어, 아랍어 등 외국어로 된 포스트잇들도 여전히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었다. 추모의 벽에다가 포스트잇을 한 장 한 장 곰곰이 읽어보는 시민들이 눈에 띠었다. 몇몇 시민은 추모 공간에 마련된 포스트잇을 꺼내 저마다 희생자를 위로하는 글귀를 적었다.

꼴목 초입에는 막 뚜껑을 연 듯한 청주와 시들지 않은 꽃다발이 네다섯개 놓여있었다.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듯한 국화 송이에는 ‘OO아, 아빠가 많이 보고싶구나. 사랑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 송원기 기자



나무 도마 흠에 필로폰 74kg, 한·중·말레이 마약 밀매 조직 검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필로폰 밀반입 조직과 공모

세관 직원 4명 입건…검역 거치지 않도록 도운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을 지난 21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을 밀반입 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과 신체 등에 숨긴 채 입국했다.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 진술 등을 통해 세관 직원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

으며 이들 4명이 마약 밀반입 과정에서 말레이시아·한국 마약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세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했고 인천공항에서 세 차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한국 총책에게 마약을 건넨 서울 명동 일대에서 한 차례 현장 검증을 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은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kg을 밀반입 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마약류관리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중 조직원과 단순 가담자 등 26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현재 한국인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

/ 이채원 기자

여기저기 송충이처럼 생긴 이 벌레 천지…심지어 해충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 미국흰불나방 유충…“30분 산책에 100마리 넘게 봤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4)씨는 지난 주말 망원한강 공원을 찾았다가 5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떴다.

계단 난간에 송충이처럼 생긴 벌레가 붙어있는 걸 보고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줄잡아 50여 마리가 주변을 기어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돛자리를 깔고 앉아 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벌레를 보고 소리를 지르더라”며 “일몰을 보려 갔다가 여기저기 널브러진 죽은 송충이에 혐오감이 들어 바로 공원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여름철에 서울 은평구를 중심으로 일명 ‘러브버그’가 출몰한 데 이어 올가을에는 서울 도심 공원 곳곳이 벌레 천지다. 생김새가 비슷해 흔히 송충이로 오해받는 이 벌레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이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인 데 비해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활엽수 잎을 먹어 먹으며 주로 도심의 가로수·조경수·농경지 과수목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20일 오전 망원한강공원 산책로에서 기어 다니는 미국흰불나방 유충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1분 동안 산책로를 걸으며 20마리가 넘는 유충을 마주쳤다. 3초에 한 마리를 본 셈이다. 행인에게 밟히거나 말라 죽은 듯한 잔해는 그보다 더 많았다. 산책로에서 만난 마포구 주민 박모(76)씨는 “일주일에 서너번은 꼭 이곳을 산책하는데 올해는 말도 못 할 정도로 많다”며 몸을 움츠렸다.

그는 “오늘 30분 정도 걸었는데 100마리도 넘게 본 것 같다”며 “볼 때마다 밟아서 죽였는데 계속 나오니 징그럽고 기분이 안 좋다”고 했다.

자전거를 끌고 인근을 지나가던 이모(63)씨도 “작년 이맘때쯤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너무 많다”며 “걸어가다 머리에 떨어지기라도 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말 “경기·충북·경북·전북 등 전국적으로 미국흰불나방의 밀도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며 발생 예보 단계를 ‘관심’(1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흰불나방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1958년 이후 처음이다.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경계 단계는 외래·돌발병해충이 2개 이상의 시·군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거나 50㏊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산책로를 기어가는 미국흰불나방 유충

김민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박사는 “산림청 조사 결과 미국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율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27~28%로 배 이상 증가했다”며 “올해 (유충이) 많이 나올 경우 내년에도 많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경계로 발생 예보 단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개체수가 늘어난 것을 이상기후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올해의 경우 기온이 올라온 듯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평균적으로 암컷 한 마리당 약 600개 정도를 낳고 죽는다. 보통 한 해에 암컷이 알을 낳고 죽은 뒤 이 알에서 부화한 2세대가 성충이 된다.

김 박사는 올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국흰불나방 유충 2세대 성충이 낳은 알에서 부화한 3세대까지 성충이 되는 비율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예전보다 (미국흰불나방 유충) 세대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 개체수가 많이 나온 만큼 알 개수도 늘어나 내년에도 평년에 비해 유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흰불나방 유충에 대한 방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활엽수 잎에서 알을 무더기로 낳고 벌레집 안에 숨어 활동하는 종 특성 때문이다. 특히 한강공원의 경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실충제 등 화학약품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 담당자는 “고압 살수로 해충을 떨어뜨린 뒤 정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니 떨어져 다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거나 옆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완전한 방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기금 전 상품설명서, [2010]투자설명서, 친환경자산과의 협약을 반드시 위아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기획·병행·판매·금융금리 이익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및 과세 범위는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XD/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이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보호 한도는 고객 개인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투자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의 예금자에게 기관화된 경우 한도는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3]: XD/IRP에서는 투자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ET/리츠 대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 문화가 되다

NH농협금융

퇴직금,
불릴 줄
아는 사람은

NH투자증권 IRP

퇴직금은 키우고 세금은 줄이고!
퇴직연금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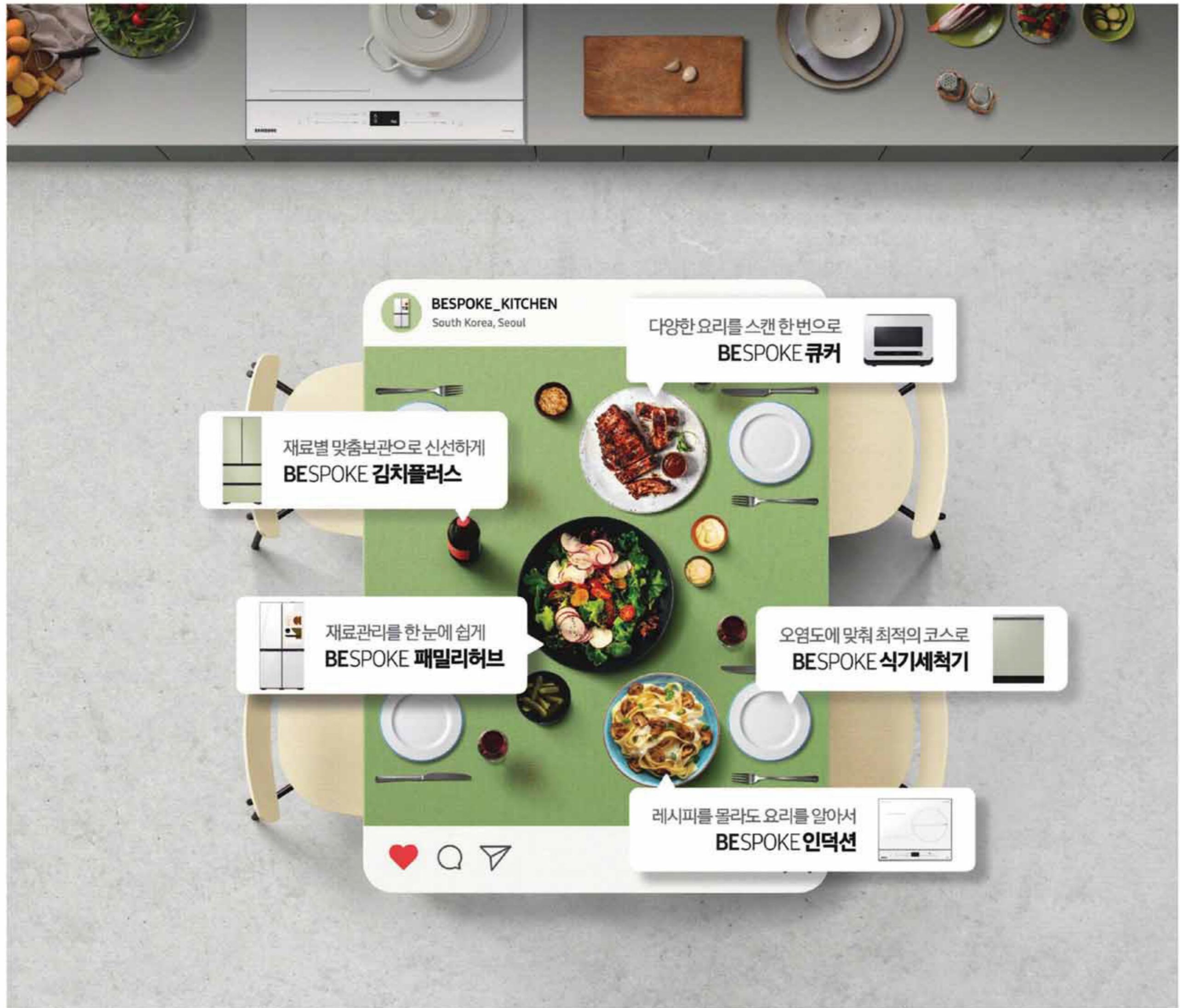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 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 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SAMSUNG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 SPOKE 키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조작 기능은 SmartThings Cooking 사용을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결 필요, SmartThings 앱의 연결 시 인터넷과 Wi-Fi 기능이 커져 있어야 함 *SmartThings 앱을 통해 Android 및 iOS 기기에서 사용 가능(Android OS 5.0 이상 지원) *해당 내용은 SW 업그레이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설비 조작 시 사용 환경, 조리 방법 등에 따라 조리 시간이 달라지거나 조리 도구가 필요할 수 있을 *죽센서, 전용 용기(냄비) 혹은 가스문개 또는 네일은 별도 구입 필요 *설비 사용 가능 기준을 100% 용기재를 스마트레스 사용(길이 20~10 cm 속면 용기 / 세정고온 용기 20cm) *설비는 서비스에서 구매 가능하게 2023년 5월 기준 148,000원인 가격은 추후 변경 가능 *[큐커 - 스캔제] *서비스 간편히 일기록과 함께 데이터 추후 각 사용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프레스 27개 / 맛집 14개 / 디저트나 10개 / C/레인제 21개 / 맛집당 25개 / 해장국 11개 / 대상 25개 / 유효 24개 / 유효 14개 / AI 맞춤 세팅 *AI 맞춤 세팅은 서비스 내 40가지 세팅 기준으로 한국표준협회(KSA)와 AS 전용 허가증 및 품질증명서를 갖춘 제품으로 구성된 고급 설비를 통한 가능

쇼트트랙 황대현, 린샤오쥔 격파…월드컵 1차 대회 1,500M 우승

박지원은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금메달…김길리는 은메달 2개

한국 남자 쇼트트랙 간판 황대현(강원 도청)이 옛 국가대표 동료 린샤오쥔(중국·한국명 임효준)과 펼친 4년 만의 국제 대회 맞대결에서 압승을 거뒀다.

황대현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3초666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테인 데스먼(벨기에·2분23초789)을 0.123초 차로 따돌렸다.

결승에 함께 진출한 김건우(스포츠토토)는 4위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휴식을 선언하며 2022-2023시즌 태극마크를 반납했던 황대현은 이번 시즌 월드컵 시리즈 복귀 첫 대회부터 '금빛 질주'를 펼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자랑했다.

이번 대회 남자 1,500m 종목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 대표팀 시절 악연으로 얹힌 황대현과 린샤오쥔의 맞대결이었다. 들은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지만 2019년 훈련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500m에서 우승한 뒤 주먹을 불끈 친 황대현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린샤오쥔은 중국으로 귀화했고, 4년 만에 국제 대회에서 황대현과 만나게 됐다.

황대현과 린샤오쥔은 이날 남자 1,500m 준결승에서 마침내 맞대결을 펼쳤다.

준결승에서 린샤오쥔이 레이스 초반 선두권으로 나서는 사이 황대현은 후미에 서 기회를 노렸다.

황대현은 3바퀴를 남기고 순식간에 2위까지 올라서며 린샤오쥔을 3위로 밀어 낸 뒤 곧바로 스피드를 끌어올려 선두까지 올라섰다.

힘을 충분히 비축한 황대현은 여유 있게 간격을 벌리며 1위로 결승선을 지났고, 린샤오쥔은 마지막 코너에서 러셀 펠릭스(캐나다)에게 2위 자리까지 내주고 3위로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린샤오쥔은 암도적인 레이스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황대현은 1년 만의 월드컵 시리즈 복귀 무대를 금메달로 장식했다.

여자 1,500m 결승에서는 김길리(성남시청)가 2분28초01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하니 데스먼(벨기에·2분27초863)에게 0.149초 차로 뒤져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서는 지난해 남자부 세계랭킹 1위 박지원(서울시청·1분24초903)이 캐나다의 스티븐 뒤부아(1분24초916)를 0.013초 차로 힘겹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1,000m 1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이소연(스포츠토토)과 서휘민(고려대)은 나란히 2~3위를 차지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이소연과 서휘민은 결승선까지 2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폴란드의 카밀라 스토퍼모프스카에게 부딪히며 넘어져 안타깝게 금메달 사양에 실패했다.

훈성계주 결승에서 김길리, 김건우, 서이라(화성시청), 심석희(서울시청)가 호흡을 맞춘 우리나라 형가리에서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산도르 류·사오양 류 형제가 이끈 중국에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길리는 여자 1,500m에 이어 훈성계주까지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건 가운데 린샤오쥔은 중국 훈성 계주팀에서 준결승까지 뛰었지만 결승 레이스에는 빠졌다.

/ 최준용 기자



선수들과 인사하는 콜린 벨 감독

여자축구, 26일 시작 아시아 예선서 사상 첫 올림픽 진출 도전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26일부터 중국 푸젠성 사면에서 열리는 2024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출전한다.

2차 예선은 3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0위 한국은 중국(15위), 태국(46위), 북한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A조는 호주(11위), 대만(38위), 필리핀(44위), 이란(63위)이 모였고 C조는 일본(8위), 베트남(34위), 우즈베키스탄(50위), 인도(61위)다.

각 조 1위가 4강에 직행하고, 조 2위 국가 가운데 성적이 좋은 한 팀이 4강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이후 4강 토너먼트에서 이긴 2개 나라가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간다. 아직 올림픽 본선에 나간 적이 없는 한국 여자축구는 '죽음의 조'로 불리는 B조에서 힘겨운 경쟁에 나서야 한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 이외에는 국제 경기를 치르지 않아 세계 랭킹이 없는 북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A조는 호주, C조는 일본이 비교적 손쉽게 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B조는 한국, 중국, 북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6일 태국과 1차전을 치르는 한국은 이어 29일 북한, 11월 1일 중국을 차례로 상대한다.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로서는 올해에만 세 번째 도전이다.

8월 FIFA 여자 월드컵에 사상 첫 8강을 목표로 호기롭게 나선 벨호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이제는 아시안게임이다'를 / 박현수 기자

남자 핸드볼, 인도 대파하고 파리 올림픽 아시아예선 3연승



남자 핸드볼 대표팀

한국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인도를 대파하고 3연승을 달렸다.

홀란두 프레이티스(포르투갈) 감독이 이끄는 남자 핸드볼 대표팀은 2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

전에서 인도에 46-19로 크게 이겼다.

3연승을 달린 한국은 우리 시간으로 23일 새벽 1시 아시아 강호 카타르를 상대로 4차전을 치른다.

카타르도 예선에서 전승 행진을 펼치고 있어 이 경기에서 조별리그 1위가 결

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날 전반전을 28-9로 크게 앞선 채 마치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케 했다.

11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예선은 2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조별리그의 각 조 상위 2개 팀이 4강 토너먼트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위는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고, 2위는 내년 3월에 치러지는 세계예선 출전권을 확보한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카타르,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로는 한 번도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

/ 한영수 기자

15세 소년, 다음 달 PGA투어 출전…2014년 이후 최연소

15세 소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 출전한다.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15세 소년 올리버 베츠차트가 1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베뮤다 포트로열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베뮤다 웹파인십에 출전한다고 21일 보도했다.

베츠차트가 다음 달 이 대회에 출전하면 2014년 관렌랑(당시 14세) 이후 가장 어린 나이에 PGA 투어에서 경기한 선수가 된다. 베츠차트는 작년에도 베뮤다 웹파인십 지역 예선에 출전했다가 한 타 차로 고배를 마셨지만 재수 끝에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베츠차트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 한해 내 목표였다. 믿기지 않고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다.

/ 양희진 기자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거래소



지구탄소다이어트 K-Energy 플랫폼, 전력거래소

우리가 살을 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구도 탄소를 빼면 더 건강해집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실행기관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속에서 우리나라 전력계통을

365일 24시간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탄소제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력거래소가 "K-Energy" 패러다임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smart
KPX
전력거래소
KOREA POWER EXCHANGE

출연작 어쩌나…이선균 ‘마약 의혹’에 방송가·영화계 ‘불똥’

촬영 마친 ‘탈출’·‘행복의 나라’ 배급사 “경찰 수사 주시”

배우 이선균(48)이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20일 알려지면서 그가 주연한 미공개 작품의 배급사와 제작사에 비상이 걸렸다.

관계자들은 일단 경찰의 수사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끊임 않은 만큼 쉽사리 공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균 주연작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작품은 김태곤 감독의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와 주창민 감독의 영화 ‘행복의 나라’ 두 편이다.

STUDIO X+U의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도 캐스팅된 상태지만, 막 촬영을 한



작품인 만큼 배우를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촬영을 모두 끝낸 영화 두 편이다. 이선균이 극을 이끄는 주인공이라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탈출’은 당초 내년 초를 목표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된 영화로 200억 원에 가까운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이 영화 배급사 CJ ENM 관계자는 “개봉 시기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작품이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행복의 나라’는 지난해 2월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이 한창인 작품이다.

배급사 뉴(NEW) 관계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개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수사 결과를 보고서 개봉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이후 송치와 기소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판까지 갈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마약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까지 된 상황이어서 쉽게 개봉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 역시 김형준 감독의 영화 ‘승부’, 강형철 감독의 영화 ‘하이파이브’, 드라마 ‘종말의 바보’ 등의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출연 예정이었던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2’는 촬영 직전 하차했다.

/ 이찬우 기자



임성한 이어 김순옥까지
‘막장 대모’들 아쉬운 시청률

‘7인의 탈출’ 연출을 맡은 주동민 PD는 제작이 확정된 시즌2에선 하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사에선 “내부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만 밝혔지만, 일각에선 많은 논란과 시청률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종영한 TV조선·쿠팡플레이 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임성한 작자가 각본을 썼는데도 중반부까지 시청률이 5% 대에 머물렀다. 후반부에는 시청률이 다소 올라 마지막 방송은 8.1%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편에서 8%대 시청률이 낮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임 작자가 각본을 썼던 TV조선의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는 각각 시즌1 9.7%, 시즌2 16.6%, 시즌3 10.4%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해 모두 ‘아씨 두리안’보다 높았다.

‘아씨 두리안’은 조선시대와 현대를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지는 판타지 멜로 드라마다. 조선시대의 두리안(박주미)과 김소지(이다연)가 현대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김 작가와 임 작가의 각본이 그간 흥행 성적만은 확실하게 보장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방송한 ‘7인의 탈출’과 ‘아씨 두리안’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7인의 탈출’은 첫 방송부터 연예계 행사장에 폭력배들이 난입해 흥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고, 여고생의 원조교제와 출산, 가정 폭력 등 자극적 소재로 논란이 됐다. 특히 금라희(황정음 분)가 팔 방다미(정라엘)를 폭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표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7인의 탈출’과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상태다. 방심위는 이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 오현수 기자

찰리 푸스, 쫀득한 보컬에 끼 한움큼…“부정적 기운 날려버려요”

5년 만 내한 콘서트서 시원시원한 라이브…3일 전석 매진



미국의 인기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는 20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5년 만의 내한 콘서트에서 “한국에 다시 오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푸스는 2015년 피처링으로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 더 세븐’ OST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이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2주간 1위에 오르며 인기 팝스타에 등극했다.

이후 특유의 ‘쫀득한’ 보컬, 가사에 담아낸 섬세한 감정, SNS 등으로 팬과 스스럼 없이 소통하는 매력 등을 앞세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그는 지난해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와 3집 수록곡 ‘댓츠 힐레이어스’(That’s Hilarious)로 국내 멜론 차트 ‘톱 100’에서도 선전했다.

푸스는 2016년 처음 내한했을 때는 2천석 규모 예스24 라이브홀에 섰지만, 이후 약 8년 동안 규모 잠실실내체육관을 거쳐 이

번에는 회당 1만5천명에 달하는 ‘K팝의 성지’ KSPO돔에서 사흘을 전석 매진시켰다.

그는 시종일관 편안한 매력과 시원시원한 노래 실력으로 빼곡하게 찬 관객들을 만족시켰다. 물론 의살스러운 표정과 미소를 동반한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푸스는 편안한 흰색 민소매 티셔츠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찰리 비 쾨이어트’(Charlie Be Quiet!)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노 모어 드라마’(No More Drama)와 ‘어텐션’(Attention) 등으로 무대의 열기를 더해갔고, 더 키드 라로이와 저스틴 비버의 히트곡 ‘스테이’(STAY) 커버 무대도 홀로 너끈히 해냈다.

접 키보드를 연주하거나, ‘동등동등’ 울리는 베이스 사운드에 맞춰 몸을 흔들고 두 팔을 하늘로 쭉 뻗는 등 끼와 흥도 숨기지 않았다. 또 맑은 고음을 죽죽 뽑아냈고, 절묘한 완급 조절로 노래의 리듬감과 긴장감을 살렸다. ‘데인저러슬리’(Dangerously)의 마지막 고음을 내지르고서는 뿌듯한 듯 웃으며 객석을 향해 연방 손 키스도 날렸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국내 팬에게도 익숙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를 부르기 전에는 “새벽 3시에 이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니 머리에서 계속 돌고 돌았다”며 “(가사처럼)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뒷얘기도 소개했다. 공연 도중 객석의 어느 남성 관객이 “아이 러브 유 잘리!”라고 외치자, 푸스는 활짝 웃고서 “아이 러브 유 투”(I love you, too)라고 화답했다.

푸스는 양코르를 앞두고서는 중앙, 좌, 우를 보며 각각 90도로 꾸벅 ‘풀더 인사’도 했다.

/ 최영민 기자



최지우 7년만의 스크린 복귀작
‘뉴 노멀’ 내달 8일 개봉

최지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뉴 노멀’이 다음 달 8일 개봉한다고 배급사 바이포 엔스튜디오가 20일 밝혔다. ‘기담’(2007), ‘곤지암’(2018) 등을 연출한 정범식 감독의 신작으로, 공포가 일상이 되어버린 새로운 시대를 그렸다.

‘뉴 노멀’은 최지우가 ‘좋아해줘’(2016) 이후 7년 만에 주연한 영화다. 그는 ‘뉴 노멀’에서 웃지 못하는 여자 ‘현정’ 역을 맡았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과 JTBC 드라마 ‘힘쎈여자 강남순’ 등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유미도 출연했다. 보이 그룹 샤이니 멤버 최민호, 블락비 출신 표지훈(피오), 트로트 가수 정동원 등도 출연진에 이름을 올렸다.

/ 신병찬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분관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 기회 UP 특례보증

스마트폰으로 **이자원(Easy One)** 앱에서 신청하세요!

문의 | 1577-5900

경기도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기회UP 특례보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대출금리 |
-2%p 지원



| 대출기간 |
8년 거치기간 최대 3년



경기신용보증재단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이자원
(Easy One)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QR 코드 스캔하고, 당신이 만난
유플러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존에도 유아 흡수 쿨링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사 키두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